

광주도시공사 순이익 200억… 사상최대 실적

경영선진화 계획 성과 영업이익률도 대폭 상승

창립 20주년을 맞은 광주도시공사(사장 흥기남)가 올해 순이익 2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의 경영 실적을 거뒀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일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 순이익 200억원과 이익잉여금 750억원 달성을 보고했으며 이를 토대로 2014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의 최근 3년 동안 순이익은 지난 2011년 9억원에서 2012년 60억원, 2013년 200억으로 해마다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2011년 107%에서 2013년에는 133%로 크게 늘었다.

광주도시공사 이사회는 이날,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사업 분야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공헌활동도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사상최대의 경영실적이 ‘광주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광주도시공사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은 2011년부터 도입한 ‘경영 선진

화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됨에 따른 것이다. 경영 선진화 계획은 재무 안정성 확보와 튼튼한 경영기반 구축, 성과위주의 조직관리, 신뢰의 기업문화 구현 등 4대 전략을 기반으로 20대 핵심과제와 185개 세부 실천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사업구조·재무·회계·조직 및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미래 지속가능한 사업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영선진화 계획이 성과를 거두면서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대

폭 상승하는 등 경영지표 전반에 걸쳐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익잉여금도 2013년 말 기준으로 75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변신하기 위해 ‘정년 3년 전 평생퇴직’ 또는 ‘매년 임금 10% 삭감’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등 임직원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 자구노력에 나선 것도 주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고강도 경영혁신과 경영실적은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광주도시공사가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

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국가품질경영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지방공기업학회주관 경영혁신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품질인증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기업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흥기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선진화계획의 중단 없는 추진으로 2014년에는 이익잉여금 1000억원 돌파, 그리고 2017년에는 전국최고의 사회공헌기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호남·제주 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급증

계약해제·해지거부 최다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콘도회원권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업체의 계약해제·해지 거부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22일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10월까지 광주와 전남·북, 제주 지역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9건에서 2012년 54건(184.2%↑)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 10월까지도 38건이 접수되면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 51건(39.8%), 전북 43건(33.6%), 전남 29건(22.7%), 제주 5건(3.9%)이다.

128건의 피해내용을 보면 ‘계약해제·해지 거부’(62건, 48.4%), ‘청약철회 거부’(22건, 17.2%) 등 계약 관

련 피해가 84건(6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유형별로는 방문판매가 95건(74.2%)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 전 해당 회원권이 본인에게 필요하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매원의 말에 혼혹돼 충동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특히 무료회원권 당첨 상술로 현혹 후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회원권 당첨 상술로 현혹되지 말고 ▲해당 업체가 관할 자치단체에 사업·분양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며

▲계약 전 입회금 반환 여부, 이용일수, 이용요금, 중도 해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서 및 약관을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롯데백화점 고액상품권 12년만에 바뀌었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상품권 출시 20주년을 맞아 10만[사진]·30만·50만원 상품권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했다. 기존 디자인의 롯데상품권 또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롯데백화점 상품권 디자인은 변경된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두 번째다. 지난 1994년 국내 최초 백화점 상품권으로 등장한 당시에는 자유(Liberty), 사랑(Love), 삶(Life)을 상징하는 롯데의 심볼(3L)과 포도송이가 장식됐다가 2002년 ‘사롯데’의 18세기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로코코 문

양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사롯데라는 소설 주인공 인물을 담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새 상품권 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새 상품권 3종을 뛰어 90만원 패키지를 사면 선착순 1000명에 한해 1만원 상품권을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산타를 이겨라, 가위 바위 보!

크리스마스를 앞둔 21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찾은 고객들이 크리스마스 이벤트 ‘산타를 이겨라, 가위 바위 보!’ 행사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직원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개인회생 올 10만건 넘을듯… 서민가계 ‘빨간불’

11월까지 9만6000건

제2금융권 대출 급증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올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은 한 달 사이에 1만7000건이나 늘었다. 대출 연체율을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급속히 늘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이 ‘빚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회생·국민행복기금 신청 급증…대출 연체율도 상승=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들어 11월

말까지 전국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한 건수는 9만6121건으로, 2012년 1년 간의 9만368건을 이미 추월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 서민지원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신청도 많아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한 결과 모두 26만4000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23만2000명에 대해 지원을 확정했다.

빚이 늘어나면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져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도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11월 말 0.87%) 역시 상승세다. 10월 말에는 0.86%, 9월 말에는 0.85%였다.

◇제2금융권 대출 증가=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9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계신용)는 991조7000억원으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금융부채 증가율보다 소득 증가율이 낮아 빚 갚는 부담이 커졌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울 만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2금융권 대출은 금리가 높아 이용자들이 ‘빚 더미’에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

/연합뉴스

11월까지 9만6000건

제2금융권 대출 급증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올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은 한 달 사이에 1만7000건이나 늘었다. 대출 연체율을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급속히 늘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이 ‘빚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회생·국민행복기금 신청 급증…대출 연체율도 상승=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들어 11월

말까지 전국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한 건수는 9만6121건으로, 2012년 1년 간의 9만368건을 이미 추월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 서민지원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신청도 많아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한 결과 모두 26만4000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23만2000명에 대해 지원을 확정했다.

특히 금융부채 증가율보다 소득 증가율이 낮아 빚 갚는 부담이 커졌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울 만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2금융권 대출은 금리가 높아 이용자들이 ‘빚 더미’에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

/연합뉴스



하이트진로, 목포사랑행복기금 580만원 기탁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대표 김인규)는 지난 5월 ‘목포사랑행복기금 1억원조성’ 협약식 체결 후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해 지난 9월 첫 적립금 7,20만원 전달에 이어 12월 19일 2차 적립금 580만원을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사진〉

‘참이슬’ 판매로 적립된 기금은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돼 “목포지역 소외계층, 결손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길석 하이트진로(주) 목포지점장은 하이트진로 “糟南北광주, 전남사랑캡페인” 일환으로 2013년 5월부터 하이트진로(주) 목포지점에서 판매되는 ‘d 맥주와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해 조성 목표액 1억원 달성을 시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d 맥주와

참이슬” 판매로 적립된 기금은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사진〉

■ 주간 증시 포커스

美 양적완화 축소 불확실성 해소… 반등 기대

지난주 미국은 FOMC를 통해 양적완화 축소를 결정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내년 1월부터 국제와 주택담보대출체권(MBS)의 매입규모를 매월 850억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줄이기로 했다.

예상보다 빨리 양적완화 축소를 실시했지만 지난 6월처럼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국내 증시에서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과 아시아 증시의 동반 하락,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강세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정체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양적완화 축소 이후 미국증시의 상승과 함께 국내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미국은 지난 1990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실행했던 양적완화 정책을 줄이거나 끝내는 출구전략을 세차례에 걸쳐 실시 했다.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경우 후유증이 있지만 충분히 신호를 주면서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경우 2004년의 경우 일시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상승추세를 이어 갔던 경험이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시장 불안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난 2004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3차례의 미국 장기금리 상승 기의 S&P500지수 반응을 살펴보면 미국은 FOMC 이후 엔/달러 환율이 104엔을 돌파한 점과 미국 자동차업종의 약세 현상이 동반된 점 등을 감안할 경우 투자전략 상 국내 자동차주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정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복지점장〉

· 자유투어는 70억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유투어

No.1 종합여행그룹 www.jautour.com

광주지점 062)371-3757

호남지역 출발 ★유류세까지 모두 포함★ (1월~3월까지 적용)

북경 아시아나항공(OZ)

북경,만리장성 4일 469,000 원~

북경,만리장성 5일 519,000 원~

상해 동방항공(MU)

상해,항주,소주 4일 569,000 원~

상해,설산 4일 769,000 원~

상해,장가계 5일 959,000 원~

제주 (OZ,KE)

선박패키지 149,000 원~

항공+선박패키지 190,000 원~

항공패키지 259,000 원~

예/약/상/담

상 무 점 062)652-2974

전 주 점 063)284-6868

광 양 점 061)792-7222

나 주 점 06